전법 일기

뇌졸중 1년 만에 의식 회복
굳건한 불심에 불보살 가피

화창하고 아름다운 일요일, 서미사 법회에 갔다가 삼 년 여 만에 지 보살님을 다시 뵈었다. 왼팔은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느리며 약간은 절뚝거리셨지만, 휠체어 없이 법당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 보살님은 칠십대 중반이시지만 조용한 말씨와 자비로 가득 찬 인상으로 서미사 불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매주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던 지 보살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1년 넘게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계셨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지내다 정확히 1년 만에 눈을 뜨신 것이다. 모두의 간절한 기도 속에, 불보살님의 가피로 기적 같은 회복을 맞이하신 것이다.

뇌졸중 환자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 보살님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또렷이 알아보셨다. 혀가 굳어 말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눈빛으로는 또렷한 의사 표현을 하셨다.

그동안 지 보살님의 쾌유를 위해 서미사 주지 일면 큰스님과 불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그 정성에 불보살님께서 자비로 응답하신 것이다.

지 보살님 가정의 깊은 불심은 지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40여 년, 초기 이민자로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살아오셨다. 교회의 집요한 전도 탓에 '불자'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던 시절, 특히 개인 사업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던 불자들은 한인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으로 인해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절에 몰래 다녀야 했고, 결국 교회로 돌아서는 이들도 많았다.

지 보살님의 불심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통도사 아래 마을에서 살던 지 보살님의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많은 자녀를 키우며 살았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번 수입으로 제일 먼저 공양미를 마련해 초하루와 보름마다 영축산 가장 높은 암자까지 머리에 이고 올라가 공양을 올리며 기도하셨다.

이러한 불심과 기도 덕분에 큰오빠는 "쌀밥 한 번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라며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미국 시카고에서 저명한 의사가 되어 가족을 모두 이민 초청했다.

지 보살님도 시애틀에 정착했고, 1983년 일면 큰스님께서 시애틀 근교에 서미사를 창건하시자, 가장 먼저 달려갔다. 미국 땅에 한국 절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불보살님의 가피로 여기며 법회마다 참석해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굳게 믿고 서미사를 찾아 꾸준히 기도해 오셨다. 그 깊은 신심의 결실인지, 큰딸은 워싱턴 주에서 유능한 검사로, 아들은 뉴욕에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지 보살님은 삼 년 만에 다시 법당을 향해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오직 굳건한 불심으로 불보살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기에 가피를 받아 가능했다고 말씀하신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⑯ 대화법 특강: 존중의 햇살 ③

'동감' 아닌 '공감'으로 마음 주고받기

관계 회복을 타이틀로 한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해 서로 오해가 깊어져 단절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 어렵게 속마음을 꺼내 놓고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엉켰던 마음을 풀어냅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그간 상대를 향했던 분노와 서운한 마음이 속마음을 꺼낸 이후에는 금세 상대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게 한 치의 예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슬픔, 외로움은 실은 안전하게 속마음을 꺼낼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대화법 특강의 전부입니다. 가시투성이인 밤송이를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해 알밤을 떨어뜨리는 것은 오직 따뜻한 햇살과 시간뿐입니다. 경청하라는 대화법 안내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할 때만이 따뜻한 햇살이 되기에 굳이 '존중의 햇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끔 교실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A4용지 하나를 뭉쳐 종이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캐치볼을 합니다. 강속구와 변화구를 던져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상대와 잘 주고받을까를 궁리합니다. 이런 캐치볼은 마치 마음을 주고받는 일과 같습니다. 그 순간 온전히 상대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말속에 담긴 메시지와 속마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공감의 의미를 착각해 공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지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서로의 친밀감을 내세워 상대에게 던져버리고는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화는 캐치볼처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안전하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상대의 공을 받지 않고는 자기의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속마음 꺼낼 데 없어 관계 단절
안전하게 속마음 꺼낼 수 있도록
주의 기울이고 기다리는 대화여야

공감은 공명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기타 줄 E를 튕기면 그대로 E의 음을 느끼고, A를 튕기면 그대로 A를 느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상대가 튕긴 눈빛, 표정, 목소리 톤의 기타 줄 음에, 있는 그대로를 함께 느끼면 됩니다. 반면 동감은 상대의 의견이나 감정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공을 던지기 위해 내심 받는 척할 뿐입니다. 상대의 공을 자꾸 떨어뜨리기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상사에게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못 본 척 지나쳐서 속상했어."라는 말에 "맞아, 맞아. 내가 그 기분 알지."처럼 어느새 화제의 주체를 자기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완전 진상이네." 같은 말도 잘 살펴보면 감정의 초점을 상대에게서 자기감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했는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처럼 동료끼리 잘 지내고 싶은 욕구를 함께 읽어줘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늘 캐치볼을 생각해 보세요. 공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일이 나와 당신을 위한 사랑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불교평론 여름호(통권 102호)는 '불교, 생명윤리를 말하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6가지 주제의 전문 기고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안락사에 대한 논고였다. 자발적 존엄사는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82%에 달했다. 심지어는 조력 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가려는 한국인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 완화치료 권위자인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게 자기결정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대로 죽을 수가 없다"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비류잉(畢柳鶯) 대만 타이중 병원 재활학과 교수의 저서 〈단식 존엄사〉가 번역·출간돼 화제가 됐다. 이 책은 저자의 어머니가 시행한 '단식 존엄사' 과정을 술회하고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사망자결권)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오래되고 낡고 찢어진 옷은 바꿔 입어야 하는 것처럼 육체도 망가지면 이와 같은 이치다. 죽음이란 이처럼 간단하며, 신비하거나 어두운 일이 아니다"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처럼 불교에서 죽음은 금기의 대상이 아니다. 부처님도 자신이 "낡은 수레와 같다"고 고백하고 석 달 후에 열반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모습이 〈대반열반경〉에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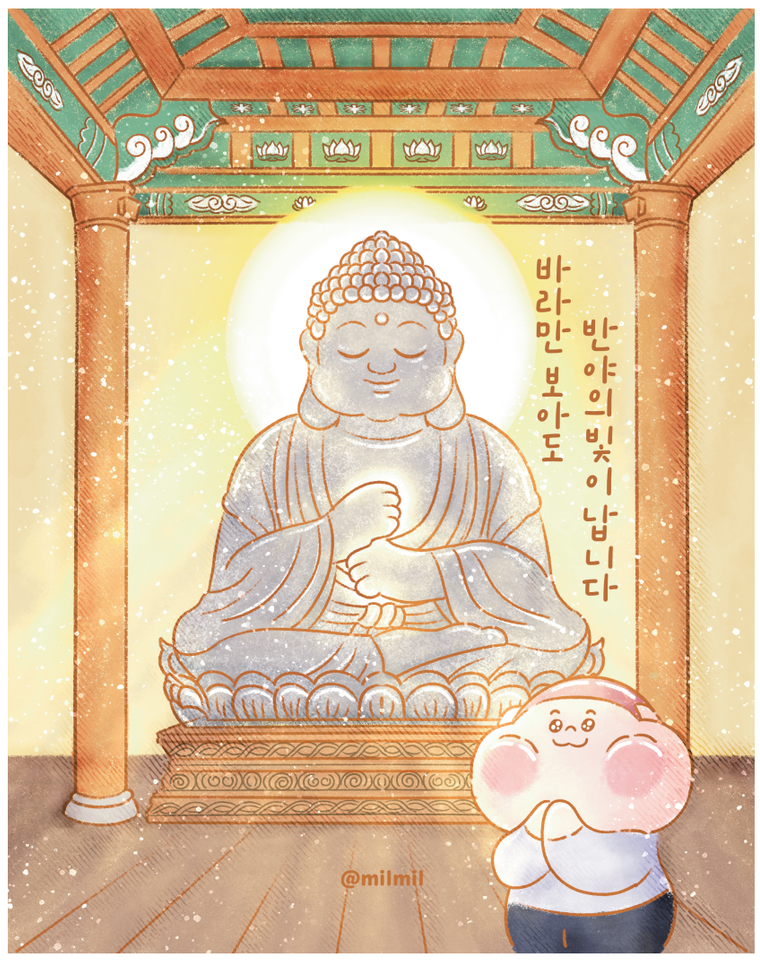
불교와 유사한 자이나교에서는 단식 존엄사 방식의 '살레카나'라는 수행법이 전해지며, 죽음을 예견하고 맑은 의식으로 화두를 지키며 좌탈입망했다는 선지식들의 일화도 우리는 접할 수 있다.

2022년 암을 발견한 뒤 스스로 곡기와 물을 끊으며 원적에 든 연관 스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가를 되새겨보게 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논의는 어떠한 종교보다 불교가 다양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